

## 깊이 들여다보는. 이슬람 읽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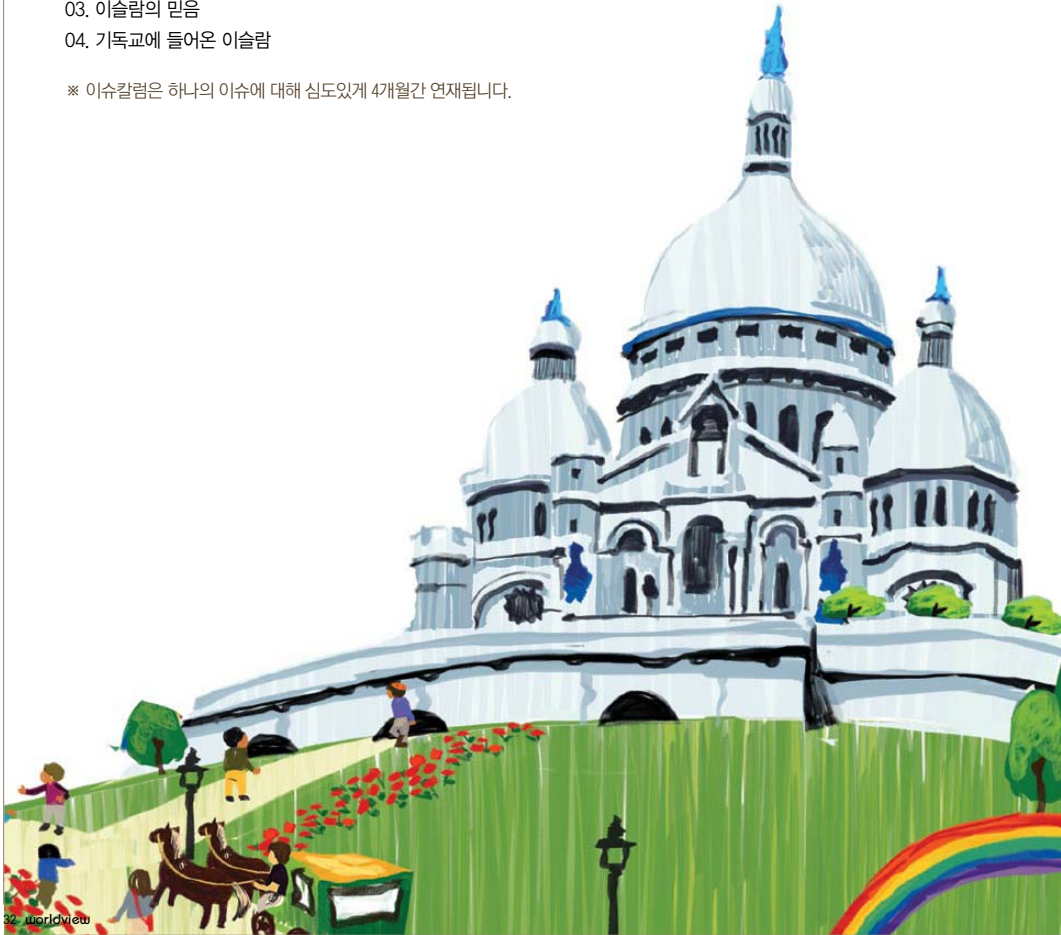
#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유해석 (FIM국제선교회 대표)

### 깊이 들여다 보는. 이슬람 읽기

- 01. 한국의 이슬람
- 02. 기독교와는 너무 다른
- 03. 이슬람의 믿음
- 04. 기독교에 들어온 이슬람

※ 이슈칼럼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4개월간 연재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이슬람의 신학적 체계는 기독교와 아주 유사하다. 꾸란(Quran)에 나오는 단어의 18%가 아랍어 성경의 여형을 지니고 있으며, 그중 3/4은 신약성경에서 인용한 것이다.

또한 구약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약 60%, 신약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약 7-8% 나와 있다.

이처럼 꾸란은 성경과 비슷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슬람은 14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옆에서 성장하였다. 이슬람이 시작될 무렵 중동은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슬람이 성장하여 기독교제국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슬람은 모든 신학적 체계를 기독교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는 기독교인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되었다.

꾸란은 이슬람의 근원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본래 아브라함은 무슬림이었고 유대교와 기독교의 뿌리는 이슬람이었다고 주장한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원형이 변질되었기에 알라(Allah)가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를 보내서 그 원형을 복구하였는데 그것이 이슬람이라는 것이다. 이슬람의 가르침대로라면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원형인 이슬람의 알라로 돌아와야 한다.

### 정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똑같은 신일까?

한국이슬람중앙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나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라는 글귀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이슬람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구별은 신관(神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랍어의 신(神) 개념인 “알라”는 이슬람에서 “유일한 진리의 신이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기독교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알라”로 표기한다. 그런 면에서 알라와 하나님은 동의어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꾸란에서 말하는 알라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과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알라의 초월성** - 신과 세상이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면에서 꾸란의 알라는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은 일반적인 신, 즉 자연신앙적이다. 따라서 정통 이슬람에서는 알라와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굳이 표현한다면 알라에게 인간은 종이나 노예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

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슬람의 알라는 창조물에 속한 모든 속성과 상태를 초월하기에 예수님의 성육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특정기간 동안 자신을 제한했다고 믿는다. 또한 예수님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에게 가까이 있다고는 하지만 인간 속에 내주(the indwelling God)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부정** - 이슬람에서는 기독교가 하나의 하나님이 아닌 세 명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 이슬람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다신주의자인 셈이다. 또한 삼위일체를 하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오해한다. 따라서 삼위의 관계를 하나님과 마리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꾸란이 말하는 삼위일체를 찾아볼 수 없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의 연합체 내에 복수성이 있다고 믿는다.

**성령과 가브리엘** -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한 믿음을 신성모독으로 본다. 꾸란에도 "영"이라는 단어가 20번 정도 나오지만 모두 신비적인 육체를 가진 창조된 존재를 의미한다. 또 영감을 주는 개체로서의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데(꾸란16:102), 이 성령은 천사 가브리엘을 의미한다. 가브리엘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계시 경로로 나타난다. 어떻게 해서 성령과 가브리엘 사이에 혼동이 빚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고 말한다. 이슬람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또는 아버지와 아들과 영원히 공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슬람의 구원관** - 이슬람에서는 알라 자신의 정의와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꾸란의 알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행한다. 알라는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타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슬람 신자조차 자신이 구원받을 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물론 꾸란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속명론에 근거한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이다(꾸란 9:51).

*이슬람에는 알라 자신의 정의와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꾸란의 알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실행한다. 알라는 인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타락의 길로 인도하기도 한다.*

둘째,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꾸란23:102-103). 셋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메카(Mecca)의 카바(Kaba)신전을 순례하는 경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꾸란 3:97). 넷째, 위에 언급한 세 가지와 다르게 유일하게 천국이 보장되는 경우가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즉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이다. 꾸란의 많은 구절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꾸란 3:169). 따라서 이슬람은 이슬람의 법인 샤리아(Sharia)를 실천하므로 구원을 받는 행위에 근거한 율법적인 종교이다.



PHOTO BY 유해석

**하나님의 사랑** - 꾸란에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임무에 대한 강조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요한복음 4:7-21에 서만 사랑이란 단어가 27번 반복된다. 성경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알라의 사랑에 대한 구절은 거의 없다. 알라의 99개 이름 가운데 사랑하는 자로 표현된 단어가 있기는 하다. 알와우드(Al-Wadud 꾸란 11:90)가 그것인데, 아랍어에서 알와우드(Al-Wadud)는 '친절'을 뜻하는 동사 와다(wadda)에서 발생한 것이다. 친절은 "사랑"의 부분적인 측면을 뜻하지만 사랑의 완전한 깊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라의 사랑은 창조물에 대한 자비와 관심을 베푸는 점에서 기독교의 은혜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것은 인격적이거나 지속적인 사랑이 아니다. 기독교와 다르게 이슬람에서는 속죄하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꾸란의 알라는 기독교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아주 다르다.



PHOTO BY 유해석

*이슬람에서 인간의 목적은 알라의 뜻에 삶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신앙(imam)이다. 인간의 본질은 연약하고 쉽게 타락하고 탐욕스럽다.*

*이슬람의 기본 원칙인 알라에 대한 복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운명론에 수동적이게 만든다.*

### 기독교와 이슬람 무엇이 더 다른가?

**인간의 본질** - 이슬람에서 인간의 목적은 알라의 뜻에 삶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슬람의 신앙(imam)이다. 인간의 본질은 연약하고 쉽게 타락하고 탐욕스럽다. 따라서 인간은 행위의 자유를 제한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이 율법이다. 일반적으로 이슬람은 사람들이나 사회의 악이 우리의 반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본래의 연약함에서 발생했다고 믿는다. 따라서 인간은 꾸란을 근거로 한 이슬람법인 "샤리아"를 지킴으로써 알라의 뜻을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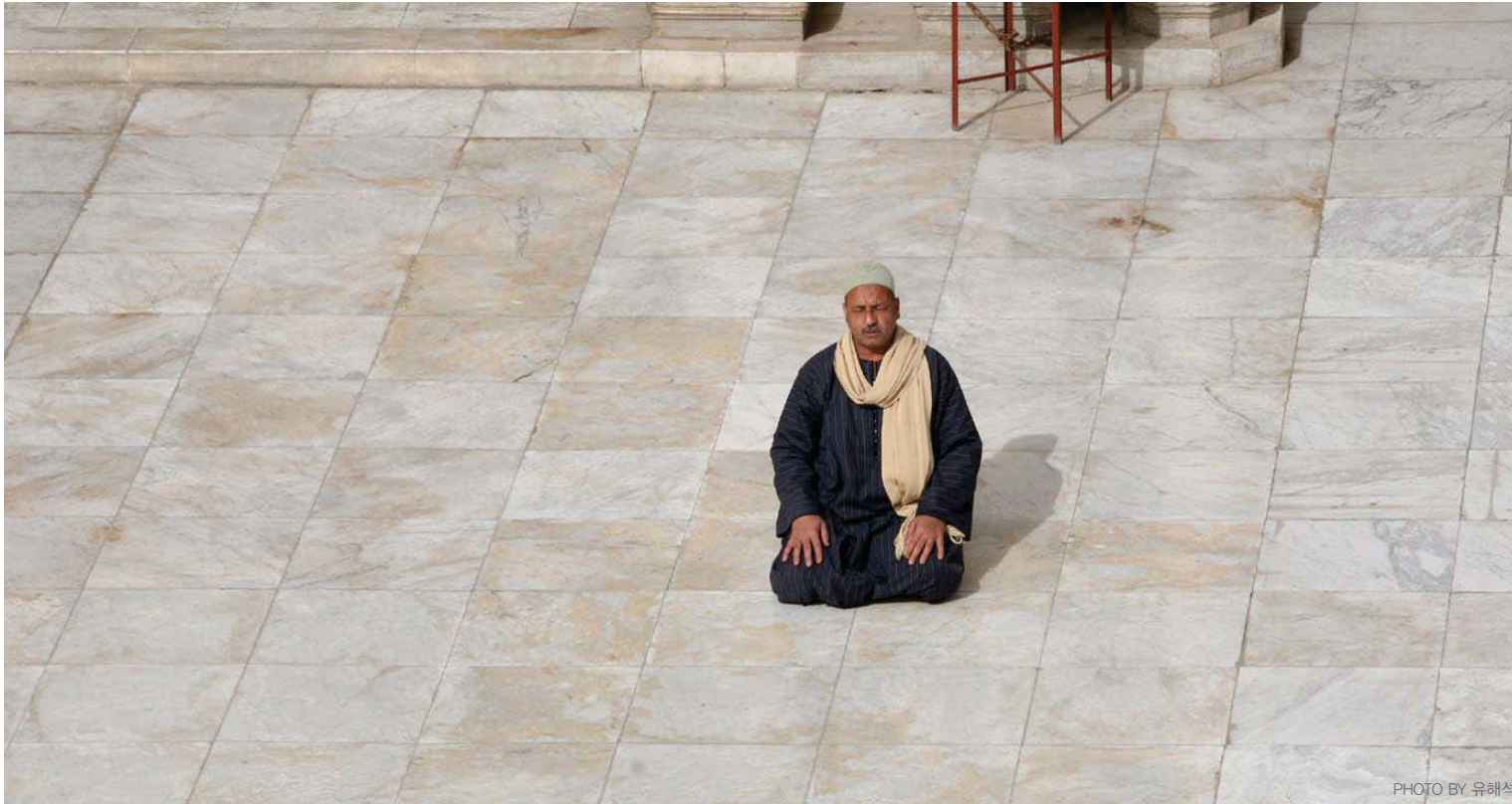


PHOTO BY 유해석

이슬람에서 인간은  
하얀 백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며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 대가로 천국에서 지구상으로  
떨어졌다고 여긴다.

**운명과 도덕의 책임** - 이슬람의 기본 원칙인 알라에 대한 복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운명론에 수동적이게 만든다. 예를 들면 이란의 테헤란에 있는 한 아파트 발코니 난간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 우연히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죽게 된 것은 알라의 뜻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알라의 과장된 전능과 복합된 이러한 운명적인 세계관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에서 거의 완벽한 도덕적 책임감의 부재를 가져온다. 결과적으로 알라는 선뿐만 아니라 악의 근원이기도 하며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미 정해진 운명에 부합할 뿐이다.

**원죄의 부정** - 이슬람에서 인간은 하얀 백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며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인간은 타락하였고, 그 대가로 천국에서 지구상으로 떨어졌다고 여긴다. 지구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미 타락의 대가를 지불하였기에 더 이상 원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을 거룩과 함께 하나님의 신성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이 원죄는 여전히 전 인류를 지배하며 모든 인간의 죄 안에서 보여진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개인적으로, 집합적으로 우리를 지배한다는 기독교적 교리는 이슬람과 다르다.

## 이단의 영향

이슬람이 기독교와 유사한 신학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슬람 종교가 당시 이슬람이 시작된 메카의 토속적인 신앙과 기독교 이단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속한 부족인 쿠라이쉬 부족은 "알라"라고 불리는 "달 신"을 최고의 신(神)으로 섬기고 있었다. 최고의 신이었던 알라의 속성에 기독교 이단들을 혼합하여 만들어진 종교가 이슬람이다. 기독교 비잔틴제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그룹들이 비잔틴제국을 떠나 아라비아 반도로 피신하였고 아라비아 반도에

서 시작된 이슬람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단들이 이슬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까? 삼위일체에 대한 이슬람의 견해는 콜리리디아니즘(Collyridianism)이라는 종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 종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숭배와 경배를 마리아에게 드리는 등 마리아를 여신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또한 구원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당시 아라비아 반도에서 세력을 떨친 본질상 도세티움(Docetism)에 속한 영지주의적 기독교론의 영향을 받았다. 무함마드는 12살 때 네스토리안(Nestorian) 수도사 부하리를 만났다. 이 수도사





PHOTO BY 유해석

가 무함마드가 선지자임을 그의 삼촌에게 알렸다. 메카 주변의 왕국인 아비시니아(Abyssinia)에는 단성론자(예수 그리스도가 단성 즉 신성만을 갖는다고 믿음)들이 살고 있었다. 무함마드의 13명의 부인 가운데 마리아안은 이 단성론을 믿는 이집트 콥트교 신자였다. 무함마드에게 영향을 끼쳤던 또 하나의 이단은 에비온(Ebionites)파였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지가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 에비온파의 특징이다. 에비온파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혼합종교로, 초기교회사에서 이단선교를 받았다. 당시 메카에는 약 200~300명의 에비온파 신자들이 살고 있었다. 무함마드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카디자(Khadija)가 이 에비온파 신자였으며 그녀의 외삼촌으로 무함마드에게 종교적으로 영향을 미친 와라까 빈 나우팔(Waraka Bin Naufal)은 에비온파의 사제이자 메카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였다.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의하면 무함마드가 히라(Hira) 산 동굴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무함마드가 경험한 것이 모세에게 나타난 천사라고 알려준 사람도 와라까 빈 나우팔이었다. 이러한 영향이 무함마드에게 확신을 주었고 새로운 종교를 세워가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이슬람에 대하여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주해하면서 "무함마드는 배교자요 이슬람은 이단이다."라고 정의했으며,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또한 이슬람을 연구한 후 기독교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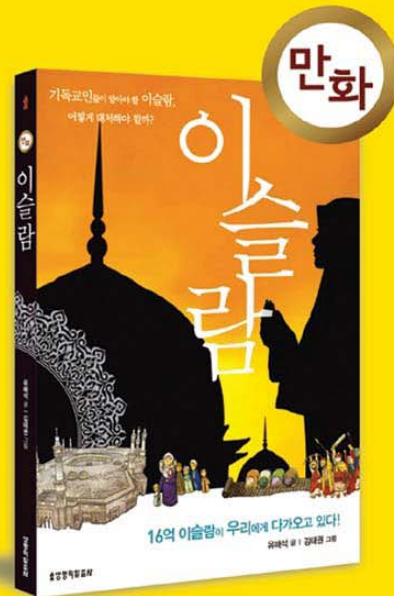
※ 다음 칼럼에서는 <이슬람의 믿음>을 다룹니다.



유해석 총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웨일즈대학교 신학부에서 공부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파송 선교사, OM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1990년부터 이집트 빈민가에서 사역하였으며 지금은 영국과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FIM국제선교회 대표로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고 있다. 총신대학교와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하였으며, 한국선교협의회(KWMA) 실행위원과 유럽 코스타 강사 및 선교분과장, CTS 기독교 TV 특강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 '토마스 목사전', '만화 이슬람' 등이 있다.

## 16억 이슬람이 다가오고 있다!

21세기 기독교 선교 전선의 최대 과제는 이슬람과의 충돌이다. 대부분 이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슬람에 대한 무지다.



유해석 글 / 김태권 그림  
값 13,000원

만화

### <만화 이슬람> 출간기념 이슬람 세미나

일시 : 2013. 10. 14(월) 15:00-21:30

내용 :

- 1강.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슬람
- 2강.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
- 3강. 이슬람에서 보는 여성
- 4강. 기독교와 너무 다른 이슬람

강사 : 유해석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장소 : 불광동 팀비전센터 (www.teamcamp.org)

(오시는 길은 홈페이지를 참고바람.)

신청 및 문의 : FIM국제선교회 이메일 또는 전화  
(fim@fim.or.kr / 1599-5591)

등록비 : 20,000원 (도서 <만화 이슬람>과 저녁식사 제공)

주최 : 생명의말씀사, FIM국제선교회



#### •추천•

-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강승삼 목사 (KWMA 대표회장), 한정국 선교사 (KWMA 사무총장), 천환 목사 (FIM국제선교회 이사장), 조지 바위 (전 O.M. 선교회 총재)

